베트남의 섬유 산업 - WTO 가맹을 추진

◎ 수출입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중국 한 나라에만 생산이 집중됨으로써 우려되는 리스크(risk)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의 생산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력하다고 하는 중국 다음의 생산 거점으로 베트남이 꼽히고 있다. 중국 리스크의 보험적 존재로서 베트남의 섬유 무역, 섬유 산업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한편, 베트남도 2005년은 WTO에의 가맹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 산업은 외화를 획득하는 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수년 동안 중국에 가려져서 베트남의 섬유 산업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별로 없었으나, 2001년에 미丶월 통상 협정, 2003년에는 일丶월 통상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수출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5년과 비교하면 수출은 3.6배, 수입은 3.1배로 확대되고 있다. 2004년 상반기의 수출 대상국은 미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미 수출에 있어서는 2003년 7월에 체결된 미丶월 섬유 협정으로 38개 품목에 대한 쿼터가 제정됨으로써 미국으로의 섬유 수출은 둔화되고 있다. 대미 수출과 대일 수출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가 있어, 일본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통화 위기 이후로, 일본으로의 섬유 수출액은 5~6억 달러로 안정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보면, 베

트남은 중국、이탈리아의 다음 가는 세번째 의류 수입 대상이 되고 있다. 의류에는 직물제 외의가 전체의 60%정도를 차지하고, 편물제 외의, 여성 내의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 외자 진출이 확대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국영 기업도 많지만 최근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적 산업은 큰 자본이 필요하므로 반 이상이 국영 기업이었는데, 2003년에는 국영 48%, 외자 28%로 외자가 증가하고 있다. 봉제 산업은 국영이 24%로서 외자의 32%보다도 적다.

베트남 섬유 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는 원재료의 대부분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공임만을 얻는 산업 구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합섬 설비가 거의 없으며, 상류(up-stream)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투자 대상으로서는 중국과 같이 거대한 생산지로는 적합하지 않겠으나, 인건비가 싸고 토지 등은 국유로 되어 있어 임차료는 극히 저렴하므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사람은 손 재주가 좋기 때문에 기술면에서의 개혁이 잘 추진되면 보다 고품질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03년 11월 기준의 임금은 월액으로 비교해 보면, 일반 공원의 경우 베트남 호치민은 102~144달러, 방콕 184달러, 자카르타 133달러, 상하이 109~218달러이며, 중견 기술자는 호치민 200~319달러, 방콕 327달러, 자카르타 229달러, 상하이 269~601달러이며, 부과장급 중간 관리직은 호치민 611~736달러, 방콕 790달러, 자카르타 608달러, 상하이 567~1,574달러이다. ♣